



초정리 편지

- 배유안

‘장문’이라는 사내아이가 고난 속에서도 석수장
이로 성장해 가는 이야기에 한글 창제에 관한
이야기를 숨겨 놓았다. 주인공의 꿈과 좌절이 담
긴 재미있는 이야기를 통해 조선시대 하층민의
삶에 파고든 한글이 그들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
키는지를 생생하게 들려준다.





훈맹정음 할아버지 박두성

- 최지혜

훈이 한글의 우수성은 잘 알지만, 시각 장애인의 글자인 한글 점자의 우수성은 잘 알려지지 않았
다. 이번 책을 통해 한글 못지않게 한글 점자 훈
맹정음의 의미와 가치도 깨달을 수 있다. 책 뒤
에 한글 점자 훈맹정음에 대한 설명을 덧붙여서
아이들이 점자에 관심을 갖고, 우리 점자의 특징
과 독창성을 자세히 알도록 했다.





국립한글박물관에 가자!

- 김경선

한글 바르기 아이들의 한글 체험과 한글의 역사 등 내용의 이해를 돕는 그림들은 그래픽적으로 표현하였다. 전달하려는 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인포그래픽은 한눈에 정보를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한편으로는 학예사 선생님 과 누리, 나루, 대한, 고운 등 아이들 캐릭터가 귀엽게 표현되어 국립한글박물관을 더 친숙한 공간으로 만들어 준다.





움직이는 ㄱ ㄴ ㄷ

- 이수지

첫 장을 펴면 '가득다의 ㄱ'에서 'ㄱ'이 새장 속에 갇혀 있다. 신선하고 놀랍고 다음엔 뭐가 나올지 궁금하게 만든다. 'ㄴ'은 줄줄 흘러내리며 녹고, 'ㄴ'은 무지끈 부러지며, 'ㄷ'은 푸시시 연기를 내며 탄다. 재미있는 퍼즐이 끝까지 이어지는 아이디어와 놀이(구성) 방식은 흥미진진하고 새롭다.





생각하는 ㄱ ㄴ ㄷ

- 이지원

한글 자음을 그림책으로 만났다. 단순하고도 아름다운 한글의 조형미에 초점을 맞추어, 한글 자모 ㄱ ㄴ ㄷ의 각 날자 모양대로 단어를 표현했다. <파란 막대 / 파란 상자>, <발가락> 등으로 한국 독자를 만난 이보나 흐미엘레프스카와 논장출판사의 공동 작업이 만들어진 그림책이다.





(소리치자) 가나다

- 박정선

'가' 부터 '하' 까지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는 말들로 재미있게 배우는 한글 그림책. 생활 속에서 자주 쓰는 한 단어 말이나 친숙한 단어들로 구성되어 가부터 하까지 한글을 부담없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기획한 책. 저자들의 재치 넘치는 아이디어와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그림이 한글 공부 책의 기능뿐만 아니라 가족 간의 사랑을 담은 그림책의 기능까지 함께 하고 있다.





개똥벌레가 똥똥똥

- 윤여림

처음엔 생소하게 느껴지지만, 낱알을 쪼개어
말이 생겨난 기원을 이야기와 그림으로 새겨 보
면 기발한 뜻에 감탄하게 된다. 책 뒤쪽에 이
책에 실린 우리말 풀이를 실어서 국어사전처럼
낱알 뜻을 익히고 배울 수 있도록 구성했다. 다
양한 토박이말을 배움으로써, 우리말의 아름다움도
새로 깨달을 수 있다.





주보다리, 한글을 지키다!

- 안미란

가난한 집의 아들로 태어나 배움에 대한 열망이 가득했던 주시경은 호머 헐버트를 만나면서 큰 사명감을 갖게 된다. 바로 언문이라고 천대받았던 우리글을 연구하는 일이었다. 주시경과 호머 헐버트는 우리말과 글을 지키는 것이 우리나라가 독립을 할 수 있는 초석이라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밀제의 모진 탄압에도 불구하고 주시경은 오롯이 훈민정음을 연구하여 한글로 재탄생시켰다.





가나다는 맛있다

- 우지영

제목처럼 모든 페이지에 한 가지 이상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이 나온다. 달달한 바나나, 따끈따끈 핫케이크, 새콤달콤 요구르트, 고소한 우유.... '가, 나, 다, 라' 지루하고 딱딱하게 전달하기 보다, 아이들에게 친근한 음식으로 자연스럽게 한글을 익히도록 했다. 서론 가지가 넘는 군침 도는 음식들을 보면서 즐겁게 가나다를 배울 수 있다.





훈민정음 해례본을 찾아라!

- 정명섭

일제 강점기에 사라진 한글의 창제 원리를 담은 훈민정음 해례본을 찾는 역사 추리 동화. 1940년대 조선어학회의 나명찬은 훈민정음 해례본을 들고 고향으로 간 뒤 광복을 앞두고 사라진다. 현재 성문시에서 만난 준우, 병수, 여진, 재향 네 아이는 한글을 공부하며 사라진 훈민정음 해례본을 찾아 나선다.

